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since
1929.5.1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713-5254(사무실) 717-2605(담임목사실)
Homepage : <http://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왕국절 제10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9. 거룩 거룩 거룩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주님의 물음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던 아담처럼, 우리도 마땅히 서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사람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여 제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더러워진 물은 바다에 이르러야 비로소 깨끗해집니다. ‘영원의 바다’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남루한 영혼을 모아 바치오니,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거짓과 위선, 그리고 끝없는 욕심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살아있음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마치 술 취한 사람의 갈짓자 걸음처럼 어지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공손하고 여유롭게,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호 10:12
♠ 교 독 문	21. 시편95편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대표기도	I. 박효선 집사 II. 조병무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1. 336.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성경봉독	I. 창 3:14-21
	II. 사 62:6-9
찬 양	임원민 집사
말 씬	I. 땀흘림과 가족웃
	II.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448. 이 세상 끝날까지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59. 성전을 떠나 가기 전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하십니다. 한숨과 원망을 거두십시오. 짊어진 정의의 십자를 다시 세우고, 희망의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사랑의 일꾼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진실과 정직으로 세운 주님의 법은 모두 든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길로 삼겠습니다. 인자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제3남선교회 주최예배	11월 기도의 밤
설교 : 김재흥 목사	기도 : 안종일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하현철 집사 한완식 장로	다함께 이순정 권사

11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중수	박석희	구성실	장혜숙	문영혜
	헌금위원	한완식	김준호	이호원	조병주	최숙화	이동규

믿음이란?

사람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 무엇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쪼개어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밀어낸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행위나 말씀 가운데 어느 부분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무슨 다른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농락하는 것이다.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사람이 슬기로운 듯하나 어리석기 짝 없는 물건인지라 내가 무슨 짓을 시방 하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 할 때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어느 모임에서 몇몇 큰(?) 교회가 걷은 헌금 얼마를 양로원인지 고아원인지 무슨 시설에 전달하는 전달식을 공개로 박수를 치고 기도하면서 별인 일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무시 또는 능멸한 것인데, 그것이 그렇다는 사실을 몇 사람이나 알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그러지 말라고 스승이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제자의 길이 아니다.

순간마다 맑게 깨어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용수철처럼, 짬만 나면 솟구쳐 오르는 못된 버릇을 속에 지니고 사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다.

스승을 모시는 제자라면, 스승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 그분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를 악물고라도(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눈 하나를 뽑아버리고서라도”라는 독한 말씀을 하신다) 하지 말아야 하고, 그분이 하라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해야 한다.

내가 누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를 그에게 있는 그대로 내어 맡기는 것이다. 내가 친구를 믿는다면 그에게 집 열쇠를 맡길 수 없다면 그것은 친구를 믿는 게 아니라 가지고 노는 것이다. “여어, 친구! 나는 그대를 믿는다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또는 서로 마주칠 적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집 열쇠 하나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상대를 농락하는 게 아니겠는가?

내가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내어 맡긴 사람이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나’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없는 사람에게 ‘내 것’인들 무엇이 있겠는가?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무엇에 집착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은 아무 것에도 집착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집착할 ‘나’도 ‘물(物)’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원리가 이처럼 명백한데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염려하고 집착하고 그리하여 괴로워하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려고도 계속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살아갈 것인가?

대답은 ‘그렇다’이다. 다만, 그러니까 어떻게든 깨어 있고자 애쓰고,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뉘우쳐 고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따름이다. 이 노력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열매를 따서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노력이 나에게 없다면 하늘인들 나에게 무엇을 줄(할) 수 있으랴?

바울로가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짐짓 나누어 말했지만, 그가 뭐라고 했든 ‘믿음’이 ‘사랑’과 마찬가지로 명사(名詞)가 아니라 동사(動詞)라는 사실만큼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것이 그렇다는 것은 바울로의 생애를 슬쩍 한번 훑어만 보아도 대번에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욕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고 우리가 받는 박해를 참아내고 비방을 받을 때는 좋은 말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습니다.”(고전4:11-13)

(이현주, 『그러므로, 저는 당신입니다』)

진정한 지혜

진정한 지혜란 자연의 단순한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에드워드 바크의 말씀에 동의한다. 진리란 사실 단순하지 않은가. 로버트 풀검은 “나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말하고 있다. 대학이 아니라 유치원이다.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자.

무엇이든지 나눠 가져라.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네가 어지럽힌 것은 네가 깨끗이 해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해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 모든 것이 삶의 질서와 조화, 안정, 행복을 가져오는 원칙들이다. 이 가운데는 지키기 쉬운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일쯤은 쉽다. 그러나 미안하다는 말은 그렇게 쉽지 않다. 무엇이든 나눠 가져라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

사람은 양쪽 감기를 하고 있다. 때로는 양심의 목소리를 따라 이쪽으로 감고, 때로는 이득을 따라 저쪽으로 감는다. 방황하고 있다.

(최성현, 『바보 이반의 산 이야기』 중에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김근중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윤정덕 구성실 한완식 임정자 이용한 오성희 김중수
 이순정 안종일 정현주 백승민 임승동 백혜숙 김애경 박성수 박영숙
 정완수 김재광 이소순 이은옥 박시내 김민걸 문영혜 박영희 임고운
 조문규 진정숙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권혁순 박혜경 최성애 하현철 윤성종 김윤정 이은자
 황경순 이동천 정두리 왕수명 조병주 조동길 배부례 김창원 정지은
 김수진 김승현 허광식 정진경 박범희 이호원 김영한

감사헌금:

김희우 방현복 이부방 윤석철 장혜숙 김용진 박효선 이호원 한상익
 정영선 김용길 최영혜 조동길 정완수 김재광 이한림 김명희 김홍기
 한창희 박미영 시은숙 제2남선교회 속장.인도자 무명5

생일감사헌금: 임승동 조항범 서형석 구도헌금: 김철수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박 옥 식	차 혜 심	조 순 덕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김 윤 수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곽 권 희	
가 나 안	유 영 남	문 영 혜	곽 혜 자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조 병 주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김 경 수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김 정 숙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최 희 정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오 복 순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이 명 희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흥 숙	이 진 경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김 시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송 양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방 극 숙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항 미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교 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003년 -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골4:17)

1. **속장·인도자회** :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2. **오후집회** : 제3남선교회 주최로 드립니다.
3. **바자회** : 오늘 점심 시간에 지하 친교실에서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바자회가 열립니다. 이 나눔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석하십시오.
4. **기도의 밤** : 5일(수)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5. **연합속회** : 7일(금) 오전 11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예배인도 - 고린도속 식사준비 -나사렛속
6. **봉사활동** : 5일(수) 오전 11시 15분부터 종묘 급식 봉사가, 7일(금) 오후 12시 30분부터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가 있습니다.
7. **단비교회 농산물** : 천안 단비교회(정훈영 목사)와 교인들이 생산한 쌀과 잡곡을 판매합니다.
8. **수능시험** : 11월 5일에는 대학입시를 위한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됩니다. 전국의 수험생들과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9. **추수감사주일** : 11월 16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깊이 헤아려 보는 절기가 되기 바랍니다.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 주십시오.
10. **부장회의**: 11월 부장회의가 사택에서 1시에 모입니다.
11. **신앙실천** : 가을 바람이 차갑습니다. 우리 마음조차 움츠러들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하루에 몇 차례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마음을 쓰면서 사십시오.

* 헌화 : 조병무 장로 (조기원 장로님 기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치부	10:50	유치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초등부	10:50	교육관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학생회실	오후집회	14:00	교육관
2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1 청년회	16:00(±)	교사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